



# 개발 가능성 '무공무진'...교육 공동체 설립해야

**김용환**발단은 교육부의 초등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 공모전에 내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한마음 선원에 나오시는 선생님들의 경우 대형 스님 가르침으로 공부하다 보니 스스로 행복해져서 그 마음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다 2004년부터 한마음과학원에서 프로그램화 하려고 뜻을 모았습다.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교재도 거의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초등, 중등용 교재를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대외적으로 신도든 아니든 불교인이든 비불교인이든 상관없이 한나무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기자:한나무의 기대효과와 가시적인 효과를 어디서 찾으셨는지요?

**이은희**아이들이 쓴 마음노트죠. 마음노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교재를 통해 마음을 살펴보고 치유하는 과정을 거쳐 뒷마무리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그대로 써보는 것입니다.

처음 한나무를 적용할 때는 기대하기보다 설렘이 있었어요. 과연 어떨까. 예상 밖으로 잘 받아들여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물론 전부는 아니에요. 처음 시행했을 때는 저도 경황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마음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써내게 해 봤어요. 이 두 질문은 체험을 해봐야만 아는 것이잖아요. 그랬더니 '아, 아이들이 받아먹고 있구나' 확인했어요. 아이들이 왜 해야 하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정여순**저는 요즘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아이들이 참 신난다는 것을 느껴요. 수업 종이 찢어도 그게 아 사들함에 가서 책을 꺼내오느라, 또 친구들과 떠드느라 야단이에요. 그런 분위기로는 수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어요. 최소한 자기 컨트롤은 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교리를 내가 알고 있어서 편하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겠다는 것이 있었어요.

저는 수업시간 10분 정도는 무조건 마음공부를 해요. 이제는 아이들이 마음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가끔 일부러 안하고 지나갈 때도 있는데 그때는 애들이 먼저 하라고 말할 정도로 좋아해요.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짜증"이에요.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 옆 사람에게도 전달되게 마련이예요. 이런 점 때문에 되도록 마음공부를 하고 부정적인 언어는 쓰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들도 아이가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기자:한나무를 교육문제연구소 프로그램과 접목시킬 수 있습니까?

**김영래**사실 인성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과에서 인성교육이 시행돼야 합니다. 영어, 수학 등의 과목 속에서도 인성교육이 있어야하는데 실제로는 그러기 힘든 상황이지요. 그 인



성교육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인성교육이 필요한 지경이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공교육 기관에 좀 더 많이 보급하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계 전반의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확고한 이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전체 교육계에서 수용하려면 학교 전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자:사태연구가 좀 더 모이고 연구가 지속되면 한나무가 전체 공교육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영래**그렇게 하기 위해 한마음과학원에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색채라는 것이 보편적 확산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개념 자체에서 종교적인 언어를 보편적인 언어로 바꾸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기자:한나무의 어떤 점들을 좀 더 개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김용환**김 박사님 말씀대로 인성교육이 본질적인 교육이 돼야 합니다. 한나무가 본질적 교육 시스템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이든 그 점을 일깨워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어 접목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목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 인성교육과 함께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기자:선생님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정여순**학교 일정은 굉장히 바빠져 돌아가고 있어요. 행정적인 업무들이 많습다. 선생님 스스로 마음을 내지 않으면 인성교육을 할 수 없어요.

인성교육을 하면 사실 아이들과 함께 늘 마음을 다 들어 더 여유 있어져요. 그래서 주위 선생님들께 권하



## '한나무' 마음노트 통해 아이들과 선생님간 마음 공유·치료 실천 가능토록 언어 바꾸기·교재의 대중화 등 작업 진행 중 학생들 인성 책임지는 건 교육자...교사들 공부 우선돼야

지만 교과목 연구 외에 무엇인가를 또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정규 교과목 속에 녹아든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합니다.

기자:불교계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여지는 충분하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할까요?

**김영래**불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해서 마음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고 계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계층, 연령의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한나무만 보자면 초·중등 과정을 개발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다양해져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들에게도 인성교육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계속 공부만 강요당해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요. 성인에게도 물론 필요합니다.

불교 인성교육이 해야 할 일은 무공무진하지요. 서구인들에게도 불교인성교육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청소년들을 보면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멀쩡해 보이는데 세상이 깜짝 놀랄 범죄를 어느 날 갑자기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학자들이 해석을 못했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대한 근원적 이해, 마음의 치유와

발달을 독일인들이 하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김용환**무공무진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불성이 무공무진하니까요. 불교의 현대화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현대화된 현대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업교육 같은 것도 앞으로 중요해지겠지요. 지식이나 자본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사회자본, 영적 자본 등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과 함께 돌아가는 인성교육, 지도자교육 등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불교인성교육이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이 있으신 텐데요.

**이은희**불교계가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종단을 초월해 한마음을 내걸어야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과 비슷한 분들이 불교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어디선가 하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 서로 좋은 것들을 통합해나갔으면 좋겠습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이나 학적 뒷받침이 있어야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한나무와 또 다른 프로그램이 교류함으로써 불교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다.

기자:불교계에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콘텐츠 제시도 괜찮습다.

**김용환**이제 저희는 불교계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은 창작한 것이 아니라 불교의 뜻을 가져다 쓴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해나가는 선생님들과 대학에서 교육을 연구하는 분들, 가정교육을 하는 학부모님들이 어우러지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향으로 함께 불교계의 뜻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불교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확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나무의 경우 사이트 접근도 제한적입니다.

**김용환**1차적으로 과학원에서 교재를 대중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인성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재는 연수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고,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학부모, 교사 사람들 누구나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조금이라도 실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수준의 대중적인 교재를 하루빨리 만들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래**우선 전문가 차원의 인성교육프로그램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에 따라 '인성교육을 받으려면 공부를 잘한다'는 인식을 퍼트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인성교육을 잘 받아들여는 아이들은 학습 능력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자기주도학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한나무는 바로 이것을 교육시킵니다. 마음을 치유하고 계발해 나가면서 말입니다. 따라서 한나무도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연계시켜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논술교육, 독서교육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인성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같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제시한다면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여순**인성교육은 곧 마음교육인데 그것이 올바로 되려면 우선 교사의 마음공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사 자신이 교육자로서 학생들의 인성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좀 더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교사 먼저 스스로 마음을 개발해나가는, 즉 교사 스스로 마음공부를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그러한 교사들이 많아지고 그러한 교사들이 발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희**한나무는 삶의 원리를 흐름에 따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교사가 완전히 습득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저절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 먼저 스스로 원리를 터득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알아야겠지요. 무엇보다 교사의 마음공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려=김경진 객원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취담 관게로 '이책은 읽어야 해' '만화로 떠나는 철학여행' '우리들 꼭꼭 씹어먹기' '우리를 생각'은 습니다.

### 금강약돌 온열복대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삼성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심안출원 권

**원격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금강약돌 온열복대를 사용하면 80℃이상의 열과 생육광선이 발산되어 원격외선 "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작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허리디스크, 고관절, 어깨 결림 등을 자연적 치유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속보다 열이 높고** 사용이 편리하며 **고열의 원격외선 "침"**이 신체 깊은 곳까지 도달하며 70℃~80℃ 이상의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원격외선의 원리로 뜨겁거나 화상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배탈, 설사를 막읍시다.**

날씨가 더울수록 우리의 배는 더 차가워지며 배가 차면 **질병의 원인이** 되며 또한 식중독, 배탈, 설사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은 먼저 선제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북한 3대 명산품인 세계희귀의 금강약돌의 효능**

건강을 나누는 (주)금강약돌에서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명산품으로 세계희귀의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육각거북건강매트, 오십견심폐조기, 헬스방석, 요추,경추베개, 족온기, 팔찌,목걸이, 베개볼 등을 개발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판매되어 사용하신 분들에게 좋은 반응과 기적 같은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금강약돌(02)723-0099 능협170-12-056037 정애영

### 삼원국제선원 여름수련회

깨달아 인가받은 78대 선사님께서 상주하시는 정법도량, 삼원국제선원이 대웅전 건립 후 첫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국가 초유로 이루어지는 범용선사 심명 범모를**

건강대선사님의 인가를 받은 명안종사,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생생한 육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법의 향취에 취해 생사해탈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릴 인연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삼원국제선원의 수련회는 종파와 종교를 초월합니다. 어떤 종교, 종파에 속해 있더라도 상관없이 다만 깨달음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련회 당일엔 광릉내 707번 중점에 오셔서 031-531-8805로 전화주세요

일 시 : 2007년 8월 2일(목) ~ 8월 5일(일)

회 비 : 60,000원(농협 100083-56-142307 예금주: 위일석)

입금하고 011-9024-1445로 성명/입금자명/연락처 알려주세요.

문의처 : 011-9024-1445 / 02-3494-0122 / 011-785-0122

홈페이지 : www.zenparadise.com

### 기초에서 창작까지 전통 꽃예술의 실기와 이론

## 한국 꽃예술과 불교

꽃예술의 이론과 실기를 꽃꽂이를 배우는 사람과 지도하는 사람 그 누구도 활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에서 창작까지 전 과정을 분류하여 수록했습니다.

꽃예술 과정 1-2 : 1)소재에 대한 기초기법 2)화기의 선법 3)수반꽃이외 병꽃이의 요령 4)수반 꽃꽂이의 19가지 형과 병꽃이 14가지 형 각 화형에 대한 작품과 상세한 해설

꽃예술 과정 3 : 자유 창작의 기본 원리인 선·면·매스 등 다양한 구성 기법을 21가지로 분류

꽃예술 과정 4 : 1)불전공화의 역사적인 유래와 함께 이해를 돕는 설명 2)의식 및 재래절절을 세분하여 작품과 함께 해설

구입문의: **기원사 02)919-0034**

**꽃꽂이 강의 (초, 중, 고, 사법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3시 기원사
-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2시 불교꽃작품연구

\* 책을 구입하시는 분은 3개월 무료로 강의 수강 할 수 있습니다. (예외시 문인 부담)